

시대를 뛰어넘은 재상 백사 이항복 종가 기증전

Treasures from the Family of
Minister Lee Hangbok

2020.04.20.월 - 2020.09.13.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 II

2019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1556-1618)의 15대
종손 이근형李謹炯 선생은 종가에서 대대로 간직해
온 조상의 유산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백사 이항복 종가는 현존 유일의 호성공신扈聖功臣 일등 교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붓글씨 천자문千字文을 비롯하여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을 보존하여 국민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항복은 “미친 듯이 제멋대로 쏘다니며, 짐승처럼 절로
자랐다.”고 스스로 말했듯, 자유분방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과거에 급제해서는 나라의 대들보로 성장했습니다. 이항복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에 없는 위기에서 나라를 짊어졌습니다.
피란하는 조정의 버팀목이 되었고, 명나라를 오가며 눈부신
외교를 펼쳤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장수와 군사들을
뒷바라지하고, 피폐해진 백성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이항복은
전란의 시대를 뛰어넘은 공적으로 다섯 차례나 공신功臣의
반열에 올랐고, 죽은 뒤에도 올곧은 선비의 표상으로 길이
존경받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사 이항복 종가 기증품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화를 함께 전시하여 이항복의
업적과 사람됨을 펼쳐 보입니다. 종가에 대대로
이어진 것은 유물만이 아니라 이항복의 넓고도 곧은
마음이었습니니다. 명재상의 후손들이 지켜온 보물에 깃든
정신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주요 전시품

이항복을 호성공신으로
삼는 교서 李恒福 扈聖功臣敎書

한호 글씨, 조선 1604년
비단에 먹, 2019년 이근형 기증



임진왜란 때 신조宣祖(재위 1567-1608)를 의주義州까지 호종한 공로를 기려 이항복을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으로 삼는다는 국왕의 교서이다. 오늘날 유일하게 전하는 호성공신 1등 교서로, 글씨는 당대의 명필 석봉石峯 한호韓濩(1543-1605)가 쓴 것이다. 교서에는 외교와 전쟁 수습에 신명을 바쳐 피란 조정의 버팀목이 되었던 이항복의 업적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항복 초상 李恒福 肖像

작가미상, 조선 18세기 중반, 비단에 색
2019년 이근형 기증

중가의 기증품에는 이항복의 호성공신扈聖功臣 초상과 위성공신衛聖功臣 초상이 포 함되어 있다. 두 초상은 각각 이항복이 49세와 58세 때 제작된 것으로, 나이에 따른 노화의 흔적을 비교해볼 수 있다. 두 점의 초상은 17세기 초의 공신상을 후대에 모사한 것이다. 초상은 인물 그 자체로 존중되어 가문에서 소중히 모셨으며, 그림이 낡으면 옮겨 그려 다시 봉안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초본은 위성공신상과 이목구비가 흡사하여 이항복 위성공신 초상의 초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항복 호성공신 초상



이항복 호성공신 초상
얼굴부분(49세)



이항복 위성공신 초상
얼굴부분(58세)



이항복 초상 초본 부분
(서울대학교박물관)

이항복이 쓴 천자문
李恒福筆千字文

이항복 글씨, 조선 1607년
종이에 먹, 2019년 이근형 기증

이항복이 여섯 살 손자 시중時中 (1602-1657)에게 해서楷書로 한 자씩 공들여 써 준 천자문이다. 붓으로 직접 쓴 천자문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되었으며, 한자 아래에 한글로 쓴 음과 뜻을 조선시대 우리말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 책의 뒷장에 쓴 “땀을 닦고 고통을 참으며 쓴 것이니, 함부로 다루어 이 노인을 실망시키지 말거라.”는 당부의 말에 손자를 향한 애정이 묻어난다.



이항복이 손수 쓴
제례에 대한 글

白沙先生手書祭屏眞蹟帖

이항복 글씨, 조선 17세기
종이에 먹, 2019년 이근형 기증

이항복이 중국 고대의 예학禮學을 집성한 『예기禮記』에서 제사와 관련된 글을 뽑아 손수 쓴 것이다. 이항복은 제사 때 절하는 의식을 무척대고 따라할 뿐 그 의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옛 경전에서 뽑은 글을 병풍으로 만들고 한다. 의례는 형식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본질이라는 사상이 담겨있다.



전시품 목록

구성	작가	작품명	시대	소장품 번호
1부	한호 씀	이항복을 호성공신으로 삼는 교서 李恒福 扈聖功臣敎書	조선 1604년	증9377
	-	이항복 호성공신 초상 李恒福 扈聖功臣像	조선 18세기 중반	증9378
	-	이항복 위성공신 초상 李恒福 衛聖功臣像	조선 18세기 중반	증9379
	-	초상 함 肖像函	조선	증9390
	-	초상 함 肖像函	조선	증9391
	-	초상 함 肖像函	조선	증9392
	-	운문단 보자기 雲紋緞褙子	조선	증9393
	이항복 씀	이항복이 쓴 천자문 李恒福筆千字文	조선 1607년	증9380
	이항복 씀	이항복이 손수 쓴 제례에 대한 글 白沙先生手書祭屏眞蹟帖	조선 17세기	증9381
	이항복 씀	이항복이 손수 쓴 당나라 시 白沙手蹟帖	조선 17세기	증9382
	-	이항복의 증손 이세필의 초상 李世弼肖像	조선 18세기	증9383
	-	이경일에게 내린 유서 諭書	조선 1804년 추정	증9384
	-	이세장을 자헌대부로 높이는 교지 敎旨	조선 1804년	증9385
	-	이영수를 통정대부로 높이는 칙명 勅命	대한제국 1900년	증9386
	-	이계상을 가선대부로 높이는 칙명 勅命	대한제국 1900년	증9387
	-	이유현을 자헌대부로 높이는 칙명 勅命	대한제국 1900년	증9388
	-	창덕궁 '어수당'의 뜻을 기리는 글 魚水堂銘	조선 18-19세기	증9389

구성	작가	작품명	시대	소장품 번호
2부	이항복 지음	노사영언 魯史零言	조선 1673년 간행	구4080
	이항복 지음	사례훈몽 四禮訓蒙	조선 1674년 중간	구5108
	이이 지음	소학제가집주 小學諸家集註	조선 1612년 간행	구4828
	-	이원의 초상 李元翼肖像	조선 18-19세기	신수2162
	-	조경 초상 趙敬肖像	조선 17-18세기	신수14504
	-	홍가신 초상 洪可臣肖像	조선 17세기	덕수2831
	이항복 지음 송시열·김수항 씀	이순신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의 탐본 李舜臣忠烈祠廟碑銘 搨本	조선 1614년 지음 1681년 비석 건립	본관1005
	이항복 지음 정사호·김상응 씀	황해도 연안성 전투 승리를 기록한 비석의 탐본 延城大捷碑 搨本	조선 1608년	덕수5813
	-	평양성을 탈환하는 전투 平壤城戰圖	조선 19세기	본관10634
	이항복 지음	이항복이 광해군에게 올린 「대비를 폐하자는 일에 대한 글」 丁巳十月廢大妃議	조선 1617년	구9556
	정충신 지음	이항복이 북청으로 유배되었을 때의 기록 白沙北遷日錄	조선 1685년 간행	진주8413
	송시열 씀	송시열이 쓴 '존주대의' 尊周大義	조선 1664년	덕수5279